전주의 물길 - 개발과 보전

송경언 (전북대학교 쌀 · 삶 · 문명연구원 HK교수)

I. 만경강의 개발

II. 전주의 삶이였던 전주천

III. 전주천의 개발

IV. 전주천의 자연화

V. 전주 물길의 개발과 보전

1. 도시의 구조를 고려한다
2. 도시의 문화를 반영한다
3. 물길은 생태축의 하나이다
4. 공간이용을 치밀화 한다

I. 만경강의 개발

하천은 생활권이 구분되도록 한다. 하천을 따라 문화도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전북 민요권의 범위들(김익두, 1996)은 금강유역권(무진장 지구), 만경강유역권, 동진강유역권, 섬진강유역권(임순남 지구) 등의 범위와 유사하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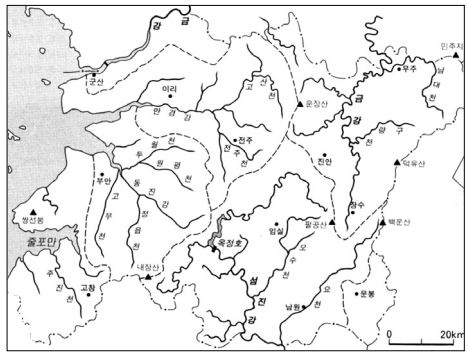


그림 1. 전라북도의 하천 유역 구분
- 출처: 권혁재, 1995, p.294.

호남평야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형성되어 있는 호남평야는 하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와 바다에 의해 형성된 간석지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전라북도의 물이 호남평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등고선은 100m를 나타낸 것이므로 지도상의 대부분은 고도가 100m 이하인 곳에 해당된다. 동부의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길은 서부의 낮은 평야지대에서 여러 물길로 나누어지게 된다. 성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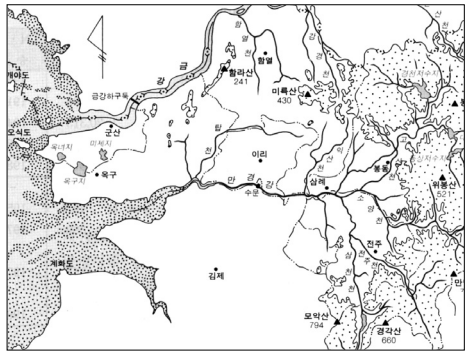


그림 2. 전주천과 만경강 지역의 지형
- 출처: 권혁재, 1995, p.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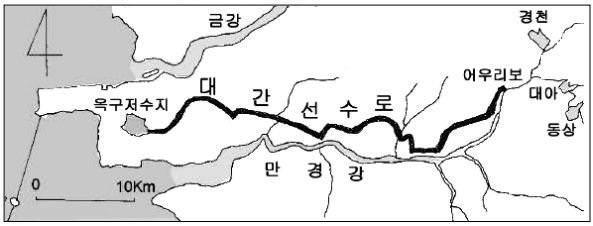


그림 3. 만경강 유역의 대간선 수로
- 출처: 조성욱, 2007, p. 192.

익은 전라북도의 물길에 대해 산발사하(散髮四下)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최창조, 2000: 117). 여러 물길은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도록 한다[1].

전주 지역의 물길들은 만경강으로 모여든다. 만경강은 호남평야를 만들었고, 전주는 호남평야에 자리 잡고 있다. 만경강의 개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농지와 농업용수의 개발은 함께 이루어졌다. 일제시기의 군산 지역 간척은 옥구저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북쪽은 미면 간척지, 남쪽은 옥구 간척지로 구분된다(남궁봉, 2000: 330). 두 지역의 간척은 1920-1923년에 이루어졌고, 이곳의 농업용수는 1922년에 축조된 대아댐에서 수로를 통해 이동한다. 대아댐과 옥구저수지를 연결하는 대간선 수로는 약 60km에 이른다(그림 3). 간선 수로는 농업용수를 위한 물길로 이용되었고, 만경강은 배수를 위해 사용되는 물길이 되었다.

만경강의 직강화는 1926-1940년의 하천개수공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만경강 중·하류 지역의 농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하천 범람을 막고자 하였다. 자연재해를 막음으로써 농지를 확보하고자한 셈이다. 만경강은 직강공사(그림 4)로 그 길이가 99km에서 82km로 17km나 줄어들었다(이형석, 1990: 367).

만경강과 연관된 개발이 농업활동이나 공간조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경강과 연관된 수리와 농지 개발의

1) 바다의 물까지도 고려해보면 전주는 한국에서 해수욕과 스키를 즐기기 위해 1시간 정도만 이동해도 되는 유일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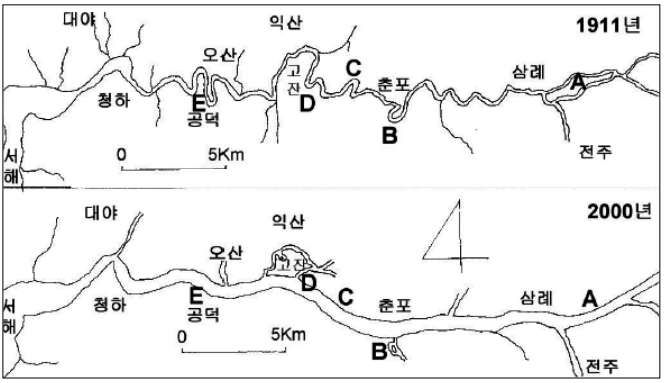


그림 4. 만경강 유로의 변화
- 출처: 조성욱, 2007, p. 195.

내용은 그 시기 한국의 개발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개발 정도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국 농촌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없어 소극적으로 개발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통해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발은 급하지 않은 개발을 가져오거나 지역과의 연관성을 줄일 수 있다. 급하지 않은 개발은 토지이용과 공간조직에서 문제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은 미단작을 지향했고, 공간조직은 이중구조를 나타냈다. 호남평야의 농지개발이 하천 범람원이나 해안의 간석지에서 일찍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단작의 문제는 줄어들게 된다. 논농사는 하천유역에서 대체로 상류보다는 하류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중구조의 문제는 군산이 급격히 개발되고 철도의 중심이 됨으로써 기존에 전주 중심의 도로망과는 유리된 새로운 공간구조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 의한 적극적 개발이 초래하는 두 번째의 문제인 지역 연관성의 감소는 파급효과 대신 역류효과를 초래했다. 지역개발의 기본적인 목표는 해당 지역으로의 파급효과이나 오히려 역류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Song, 2009: 21-22).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각 장의 공간적 범위는 차이를 보인다. 전북 전체와 관련된

만경강, 전주라는 도시 속에서의 전주천, 전주천과 그 주변, 전주천 등으로 점차 그 공간적 범위가 대체로 작아진다. 이들은 시기적으로도 순차적으로 전개되는데, 공간적 범위가 작을수록 오늘날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낸다.

II. 전주의 삶이었던 전주천

도시는 하천을 끼고 발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주천은 전주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다. 전주천의 발원지는 임실군 실치재이고, 전주시가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길은 전주의 남쪽 좁은목에서 시작된다. 전주천은 길게는 발원지에서 만경강으로의 합류 지점까지이지만, 짧게는 한벽당에서 삼천과 만나는 지점까지를 가리킨다(홍성덕, 2007: 25). 이 글은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시가지 사이에 있는 전주천 즉, 한벽당에서 삼천 합류 지점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주천은 예로부터 서천과 남천으로 구분해왔다. 이는 전주의 옛 중심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전주천은 범람하면서 주변의 평지를 만들어냈다. 진밭뜰, 장제뜰, 용산뜰, 사평뜰, 가르내뜰 등의 지명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 시가지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분지라기 보다는 선상지(扇狀地)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전주시사, 1974: 18-20).

후백제까지도 중바위에서 칼바위에 이르는 전주의 동쪽 구릉이 주요 삶의 터전이었고, 퇴적층인 구도심은 농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 사람들이 전주천에 보다 가까이 거주하게된 것은 전

주성을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중엽 이후이다(전북일보, 2006년 7월 24일자).

전주천의 물길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물길이 하천 외부로 바뀌는 경우와 하천 내부에서 바뀌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첫번째이다. 현재의 전주천 외부로의 유로 변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전주천의 물줄기가 지금과 달리 전주의 동쪽구릉 아래를 따라 북쪽으로 곧바로 흘러들어 갔었는데, 점차 서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상지라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볼때 인공적으로 물길이 고정되기 이전까지는 유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전주시사, 1974: 18-20). 발원지에서 토사를 운반해오던 전주천은 좁은목을 지나면서 가지고온 토사를 한벽당 부근부터 퇴적시키기 시작했다. 선상지는 음료수를 얻기가 쉽고, 배수가 양호한 반면, 홍수의 피해를 입기가 쉽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1936년에 시가지의 대부분이 침수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에 제방공사가 이루어면서 물길이 고정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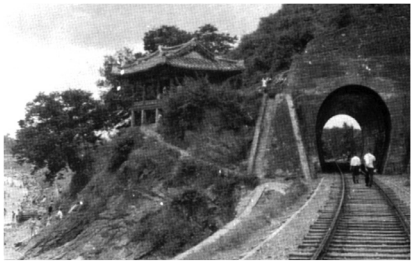


사진 1-1. 한벽당 지역의 변화(1960년대)

사진 1-2. 한벽당 지역의 변화(2009년대)

- 출처: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p.27.

한벽당이 자리잡은 지역은 전주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사진 1). 이는 전주천이 전주시가지로 들어오며 방향을 바꾸면서 만들어낸 경관이다. 한벽당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의

사진 2-1. 한벽보에서의 빨래와 수영

사진 2-2. 둔치의 남부시장

사진 2-3. 둔치의 옹기점

- 출처: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p.110.

미하는 한벽청연(寒碧晴烟)이 그려지게 된다. 전주천에서의 추억을 사진에 담고 있는 무대 중에 제일로 꼽히는 곳이 한벽당 경관이었다.

전주천과 천변에서 여인네들은 빨래하고, 어린이들은 멱을 감으며, 상인들은 점포를 열었다(사진 2). 빨래는 우수에 오수를 더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정도가 하천의 자연정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남천교에서 빨래하는 풍경은 남천표모(南川漂母)라 하여 완산 8경의 하나였다. 1950년대 전후에는 빨래하는 여인네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교동과 서학동을 잇는 남천교, 다가동과 화산동을 잇는 다가교 등의 부근이 빨래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다. 빨래하러 전주천에 나오는 길은 이웃들과 얘기를 나누고, 점심을 먹기도 하는 길이었다.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은 냇가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였다(송영상, 2000: 296-297).

조선시대에 전주에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통치했던 전라감영이 있었고, 전주천 일대에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 들었다(전북일보, 2006년 12월 19일자). 전주천변에서는 시장이 열렸다. 조선시대 전주부성 사방의 성문 밖에는 정기시장이 있었다. 서문밖 시장과 남문

밖 시장은 전주천변에까지 상인들이 자리를 잡았다. 서문밖 시장은 7일장으로 소금과 깨와 같은 양념과 어물이 거래되었고, 남문밖 시장은 2일장으로 생활용품과 곡물이 거래되었다(홍성덕, 2007: 27-28)

전주천의 삶은 다리들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 시가지의 확대에 따라 다리들은 도심의 남쪽뿐만 아니라 서쪽에서도 놓여졌다. 오늘날 시가지를 끼고 있는 전주천의 다리들도 그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도심의 남쪽에 위치하는 다리들은 남천교, 전주교(싸전다리), 매곡교(연죽교), 서천교, 완산교(염전교), 다가교 등 남천교에서 다가교까지이다(그림 5). 이들은 전주부성 시기부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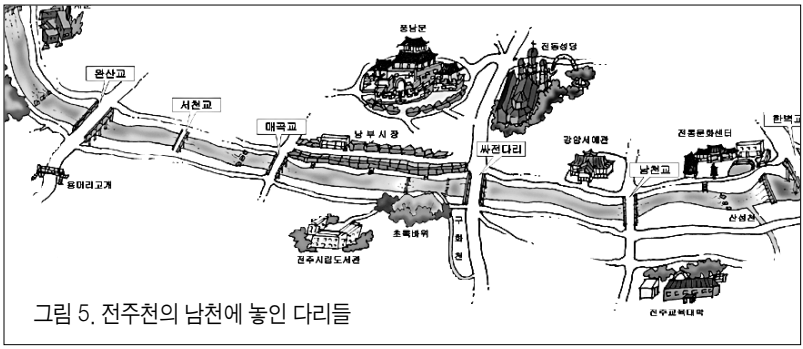


그림 5. 전주천의 남천에 놓인 다리들

- 출처: 전북일보, 2006년 7월 12일자

다리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시장이 열렸는데, 이들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전주교에서 완산교 사이의 천변에는 여러 곳에서 장들이 열렸다. 다리 주변에 시장이 형성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점과 전주천변의 너른 공터가 있었기 때문이다(홍성덕, 2007: 29). 이곳은 오늘날에도 남부시장이 위치하고, 둔치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며 다리 아래에는 노년층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김규남 · 이길재, 2002: 34).

전주교는 싸전 거리 옆이어서 싸전다리라 불리었다. 매곡교는 연죽교라 불리었는데, 이는 서천교까지 담배장수들이 좌판을 벌인 것

에서 연유한다. 매곡교 아래쪽은 우시장이 열려 쇠전천변이라 일컬어졌다(송영상, 2000: 292-293). 완산교가 염전교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조선시대에 소금이 귀했는데 소금장수들이 장사판을 벌인 것에서 연유한다. 완산교는 용머리고개를 통해 경목선(京木線)과 이어졌다. 이는 전남지방에서 공급되었던 소금이 완산교에 이르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곡교에서 서천교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책방거리가 있었다. 전주천에 제방이 쌓이기 전에는 둔치에 장옥과 초가집들이 있었는데, 책방거리는 물길에 가장 가깝게 위치했었다고 한다. 서천교는 전주부성의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성벽의 중간지점에 해당되는데, 서문밖장과 남문박장과는 다소 떨어진 곳에 있어 숙박기능들이 위치했다. 매곡교는 완산다리라고도 불리었는데, 남부시장권은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매곡교의 동쪽은 북적댔고, 서쪽은 주택지였다. 전주천 너머 완산동은 나무전이 있었고, 매곡교 넘기전 전주교 중간지점까지 판자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섰다. 판자촌에는 종이방, 주점, 국수집, 수제비집, 옷전, 기름집, 개고기집 등이 양쪽으로 밀집해 있었다. 다리 주변에는 번데기장수, 우뭇가시장수, 개떡장수, 풀떼기장수 등이 장사진을 이루었다(김규남 · 이길재, 2002: 35-37). 이러한 삶이 어어져 오는 것이 오늘날 남부시장 일대라고 할 수 있다. 전주천에서의 빨래, 멱, 상거래 등은 전주천에 제방이 쌓이면서 점차 옛모습을 잃어 갔다(김규남 · 이길재, 2002: 30).

남천교는 싸전다리가 나무로 엮은 임시다리일때 풍남문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다리였다. 싸전다리가 전주의 중심 다리로 부각된 것은 1910년 홍수로 남천교가 무너지고 1922년 싸전다리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면서이다. 싸전다리와 함께 1922년에 콘크리트로 놓여진 완산교는 서문밖시장과 연결되었다. 싸전다리와 완산교는 물자 집산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대적 교통로도 이 다리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홍성덕, 2007: 29).

전주천에는 배도 떠 있었으며, 천변에서는 활쏘기도 이루어졌다. 전주기전대학과 어은골 사이에 배마을(舟洞)이라는 지명도 배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홍성덕, 2007: 27). 전주팔경의 하나인 다가사후(多佳射帿)는 다가천변에서의 활쏘는 풍경을 가리킨다.

풍남동의 건너편에는 수탈과 선교, 파란의 역사가 있어,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풍남동 일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신사참배와 예수병원 · 신흥학교 · 기전학교, 동학군 활동 등의 역사를 담고 있다(전북일보, 2006년 8월 8일자).

하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공업활동도 존재하였다. 전주의 대표적 제조품 가운데 하나인 한지는 만경강의 지류인 소양천과 전주천의 지류인 공수내 인근에서 생산되었다. 공수내가 흐르고 있는 흑석골은 한지 생산으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었다. 현재는 도로로 복개된 공수내와 자연하천이 만나는 부분에 한지 제조업체가 한 개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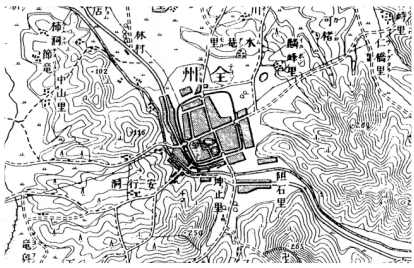
흑석골의 물은 마르는 일이 없고 철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더욱 한지 생산에 적합하다고 한다. 전주의 한지 생산은 풍남동에서 시작되었는데, 해방 이후 도심의 확대에 따라 물이 깨끗한 흑석골로 이동하였다. 1960년대 초에는 하천수를 이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하천수가 부족하고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80년대 초에는 14개 업체 모두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김재희, 1983: 36-37). 한편 조선시대에는 도토리골 천변에 외지소(外紙所)가 있어 종이를 만들었다고 한다(전북일보, 2006년 12월 19일자).

III. 전주천의 개발

전주천을 개발하기 시작하게된 배경에는 자연재해가 있었다. 1936년에 발생한 홍수는 전주천의 옛 모습과 다리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반드시 언급하는 내용이다. 서학동과 완산동, 교동과 다가동 일대가 물에 잠겼고, 다리 가운데서는 전주교만 남게 되었다(송영상, 2000: 292-293). 전주천의 다리는 지속적으로 개설되어 왔다. 홍수가 다리를 무너뜨려도 다리들은 다시 세워졌다. 전주천 제방들도 홍수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축되어 왔다.

1960년대 중반의 신문기사에서는 전주천의 하상개수공사가 물이 멋대로 흐르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언급되고 있다(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78). 이는 하천 내부에서의 물길 변경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전주천의 물길은 대부분 고정되었다. 물이 범람하는 것은 제방에 의해 막혔지만, 하천 안에서는 집중호우가 지난 다음 깊이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물길이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주 물길의 개발은 가까이는 둔치와 천변, 멀리는 시가지 개발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은 전주의 시가지 개발과 전주 물길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시가지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형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형도의 축척은 1:50,000이고, 그 시기는 1900년대 중반, 1910년대 중반, 1950년대 중반, 1960년대 중반,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 등이다. 이 가운데 시가지의 변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형도의 시기는 1900년대 중반,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 2000년대 초 등이다(그림 6). 1900년대 중반의 시가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그 동쪽과 북쪽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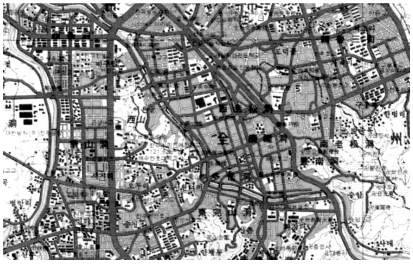


1900년대 중반 - 출처: 남영우, 1996.

1970년대 중반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6-1. 시기별 전주 시가지와 전주천

1980년대 중반



2000년대 초

그림 6-2. 시기별 전주 시가지와 전주천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년대 중반에는 건산천 북쪽에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기존 시가지의 동쪽뿐만 아니라 전주천의 남쪽과 서쪽에서도 시가지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초에는 전주천 남쪽과 서쪽의 시가지가 그 반대편 시가지의 규모에 못지않을 정도로 형성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전주천이 시가지 양쪽을 비슷한 규모로 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가지 개발에 대해 동별과 개발지구별로 보면 1960, 1970년대에는 진북동, 금암동, 덕진동, 인후동의 일부가 개발되어 전주를 둘러싼 산자락 안쪽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이는 전주 시가지 확대의 1차 시기로 남북 방향의 도시개발이었다. 2차의 시가지 확대는 전주 외곽의 동쪽과 서쪽이 개발되는 시기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삼천지구와 효자지구, 1990년대 중반에는 서신지구와 아중지구가 개발되기에 이른다(김규남 · 이길재, 2002: 100).

전주천의 남쪽과 서쪽은 주거기능 중심에서 사무기능과 상업기능

도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양 쪽 지역은 점차 기능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가지는 확대되는 반면, 물길은 복개되어 축소되어 있다.

전주의 시가지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전주천 지류의 복개이다[2]. 시가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1970년대에는 금암천과 노송동의 무명하천과 노송천, 1980년대에는 중앙시장 하천, 1990년대에는 건산천(모래내)과 공수내(사진 3, 4) 등이 차례대로 복개되었다(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79-81). 모래내와 노송천의 경우는 1990년대 말에 복개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데, 이는 전주천의 복원이 이루어지던 시기와 비슷하다. 지류의 물이 전주천으로 흘러들어 감으로써 하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 쪽은 복개, 다른 한 쪽은 복원이 이루어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천이 복개된 곳에서 지상공간은 도로,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되

사진 3. 공수내와 공수내 다리

사진 4. 공수내 복개로 만들어진 도로

- 출처: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p.61.

사진 5-1. 전주천의 지류들(건산천)

사진 5-2. 전주천의 지류들(산성천)

2) 한편 시가지를 끼고 있는 전주천의 물길 자체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 지하공간에서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곳은 지상과 지하 모두 비생태적인 공간에 해당된다. 도시 하천의 복개는 물길을 덮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문화와 기억들을 묻는 것이기도 하였다. 반면에 전주천 가운데 남천으로 흘러드는 산성천, 원당천, 객사천 등은 복개되지 않고 흐르고 있다(사진 5).

천변과 둔치에 대해 살펴보는데, 다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둔치와 천변은 구분하고자 한다. 둔치는 하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반면, 천변은 둔치를 포함하는 하천의 옆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제방이 온전하게 쌓이기 이전에 둔치와 천변의 구분은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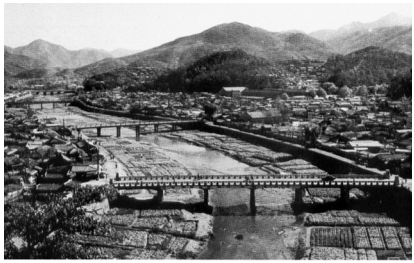


사진 6. 1960년대의 둔치와 천변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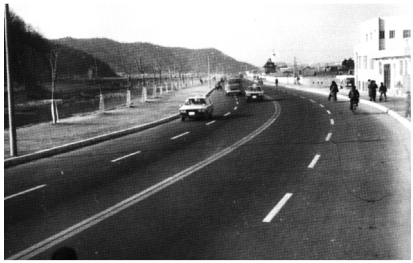


사진 7. 1970년대 말에 개설된 천변도로

- 출처: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p.15, p.66.

전주천변에는 간선도로가 개설되었다. 이는 기존의 간선도로가 전주천과 수직이었던 것에 평행인 간선도로가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도로가 하천과 수직이면 하천의 양쪽 지역은 통합이 되지만, 큰 도로가 하천과 평행이면 두 곳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천변도로가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바뀐 것은 1970년대 말이다(사진 6, 7).

둔치는 개발되기 이전에는 서민들의 생존공간이었다. 도심과 가까이 거주해야 생계 유지가 가능한 이들은 둔치를 거주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1960년 신문기사에 의하면 매곡교 상류 전주천 바닥과 한벽당 상부 및 다가교 천변에 총 1백여호의 판자집들이 매년 여름이면 홍수에 휩쓸릴 것을 각오하고 하루살이를 계속하고 있었

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에서 몇 km 떨어진 지역에 땅을 사줄테니 이주하라고 했으나 그렇게하면 하루벌이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둔치의 가옥과 노점들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철거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말의 신문기사에서도 한벽당 상류에서 서신교에 이르는 곳에 밭경작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주천이 더러워져 빨래를 못하게 됨으로써 전주시는 경작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7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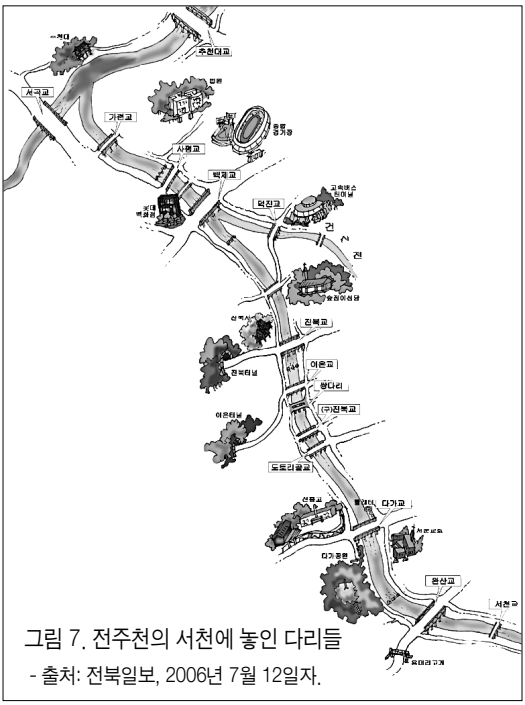


그림 7. 전주천의 서천에 놓인 다리들
- 출처: 전북일보, 2006년 7월 12일자.

1970년대에 전주천의 다리는 전주부성 시기의 6개에다 진북교와 서신교가 추가된 8개였다(송영상, 2000: 292-293). 이시기에 서신교는 전주시에서 서신동 지역과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가 되었다(김규남 · 이길재, 2002: 41). 오늘날 전주천의 다리들 가운데 서천에 위치한 것은 도토리골교에서 가련교까지이다(그림 7). 이들은 도심과는 거리가 있으며 개설 시기에 있어서도 남천의 다리들에 비해 대부분 늦다고 할 수 있다.

Ⅳ. 전주천의 자연화

바야흐로 생태를 개발하는 시대가 되었다. 개발은 반드시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행위이다. 개발이 파괴를 의미하게 된 것은 과거의 개발 즉 잠재력의 실현이 주로 파괴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천 복원에서 '청계천 복원' 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되는데, 도시의 규모에 따라 그 복원의 성격은 적지않은 차이를 보인다. 거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하천 복원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 전주천 자연하천형 조성사업은 지방중심도시의 하천복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선거 공약에서 특히 도시의 경우 과거에는 도로, 공장 등의 건설이었으나 오늘날은 물길 복원, 숲 조성 등을 많이 내세우게 되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물길 복원은 생태공간의 개발에 해당된다[3]. 그러나 생태의 개발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게 된다.

전주의 물길에 대한 개발의 과정을 그 대상 공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시기에는 하천의 길 및 제방으로 하천을 선적으로 대하였고, 산업화시대에는 초기의 둔치 및 제방과 후기의 천변으로 하천을 면적으로 관리하였다. 친환경시대에는 하천 줄기와 둔치 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하천의 선들과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생태를 위한 개발' 또는 '개발을 위한 생태' 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전주 지역 개발을 위한 전주천 자연화 사업은 개발을 위한 생태인 반면, 전주천 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주천이라는 생태의 유지를 위한 개발에 해당된다.

이른바 전주천 복원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공업화 시대에 물자의 이동을 위한 도로가 중시됨으로써 무시되었던 물길이 다시 중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2000-2002년 동안 한벽교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이학훈, 2004: [4]. 구체적인 개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주요 특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사업의 주요 대상 공간은 물길의 바닥과 벽, 둔치였고, 주요 내용은 하천의 자연화와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하천의 자연화를 위해서는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바닥에는 여울과 소[4]를 만들고, 가능하면 곡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둔치는 녹지화를 추진하였다. 주민이용의 편의를 위해서는 물길에는 징검다리를 만들고, 둔치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와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자연화 사업을 통해 전주천에는 1급수에 서식하는 쉬리가 돌아오게 되었다.

전주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하천 위쪽에만 있어왔으나 물길 자체에도 징검다리 형태로 놓이게 되었다. 하천 위쪽의 다리들은 개발된 곳을 이어주는 반면, 물길에 놓인 징검다리들은 생태공간을 이어준다. 위의 다리들은 일상적인 공간으로 하천 외부의 큰 도로와 연결되는 반면, 밑의 다리들은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하천 외부의 작은 도로와 연결된다.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전주천의 자연화를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덕진보의 철거라고 할 수 있다. 덕진보는 하가마을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1958년도에 설치한 것이다(사진 8). 물

4) 여울은 자갈이 쌓여 있는 부분으로 물이 얕고 바닥의 경사가 급하며, 물이 소리를 내면서 빨리 흐른다. 여울과 여울 사이에서는 물이 조용히 흐르고, 깊으며 바닥에 모래가 있어 멱 감기에 적당하다. 여울과 대응되는 용어는 풀(pool)이다. 물은 자연 상태에서는 곡류하므로 풀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천 양쪽에 번갈아 나타난다. 물이 아주 깊은 곳은 소(沼)라고 한다(권혁재, 2005: 99).

에 대한 관리의 시기를 치수, 이수, 친수 등으로 구분한다면, 덕진보는 이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친수의 시기에서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덕진보에 의한 물길 차단으로 사평마을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전북일보, 2006년 12월 12일자). 결국 덕진보는 2007년에 철거되기에 이르렀다.

사진 8. 옛 덕진보 - 전북일보, 2006년 12월 12일자.

이러한 공간이용의 변화는 치수와 이수 시기에 이용했던 것을 친수 시기에는 이에 알맞은 용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화 사업후에 장마시 하상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자연형 하천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둔치는 전주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친수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천변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다. 전주천 하류의 천변은 개발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주천 북쪽에 비해 자연조건상 개발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주천을 자연화하는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적지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주천의 개발 방안들에 대한 수정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하류의 물을 정화하고 상류로 끌어들여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안과 한벽당 부근에 보트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취소되었다(신진철, 2007: 31).

전주천에 이어 그 지류들에 대한 자연화 사업도 논의되거나 시작되고 있다. 중앙시장 복개구간, 노송광장에 덮혀있는 노송천 등의 복원과 건산천의 미복개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전북일보, 2006년 12월 26일자). 전주천을 끼고 있는 시가지의 확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물길은 축소되었다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Ⅴ. 전주 물길의 개발과 보전

전주천을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의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주천의 자연화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하천은 도시 속에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하천을 축으로 형성되고, 도시의 문화는 하천과 긴밀하다. 하천의 생태는 물길의 체계와 흐르는 물의 영향을 받는다. 하천의 개발은 그 생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 도시의 구조를 고려한다.

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논의에 있어 도시의 구조를 검토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도시의 규모이다. 도시의 규모에 따라 개발의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친환경적 개발의 전략들도 다르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책 제목은 규모 자체가 친환경적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모가 작을 수록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이다. 자전거가 도시에서 이용될 수 있는가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규모에 달려 있다. 도시의 규모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개설 가능성과 자전거 이용자의 대기오염 노출 정도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주의 도시 규모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전주 시가지는 전주천을 끼고 있다. 따라서 전주천에 대한 논의에는 전주 시가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전주 시가지에 대한 논의에는 전주천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들간의 관계이다. 전주천이 그

양쪽 지역들을 통합하는가 또는 분리하는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시가지가 전주천의 한쪽에서만 형성되었던 1960년대 이전에 전주천은 양쪽 지역을 강하게 통합시키는 역할을 했다. 물자들은 가까이와 멀리서 집산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생활은 전주천과 긴밀하였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러한 기능들은 점차 줄어들거나 소멸되어 갔다. 친환경시대에는 전주천의 생태와 문화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있다.

사진 9. 전주천과 아파트와 공장 굴뚝

둘째, 전주천의 개발 내용은 주변 시가지의 기능에 어울리게 하고, 주변 시가지의 개발은 전주천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천과 아파트와 공장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사진 9). 전주천은 개발시대에는 버려져 있었으나 보전시대에는 복원을 지향하고 있다. 아파트가 자리잡은 곳은 개발시대에는 매립장으로 이용되었으나 친환경시대에는 거주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공업단지는 산업화시대에 입지하였으나 생태도시를 지향하는데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주천의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서도 하천과 도시의 기능을 연관시키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와 인접한 둔치에 생태 체험을 위한 실개천이 만들어지고 신시가지 인근에 수변무대가 마련된 것을 들 수 있다(신진철, 2007: 32).

셋째, 전주 시가지와 하천에서의 흐름을 대상으로 한다. 옛부터 전주천의 양쪽에 시가지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전주천의 남쪽에 시가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전주천의 오염정도는 자연정화능력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가지에서 물길은 바람길 역할까지 한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많

이 들어서서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물길이기 때문이다. 전주의 경우 공업단지가 시가지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어 바람길이 더욱 중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장 굴뚝의 매연 배출 시기가 바람의 방향에 의해 결정되어 매연이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생태도시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에는 시청에 도시 기후와 연관된 부서를 두고 있다. 바람길 지도도 이 부서에서 만들어진다.

2. 도시의 문화를 반영한다.

생태에 해당되는 하천 개발의 방향은 그 생태와 연관되는 문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천의 복원은 일차적으로는 방치했던 생태의 복구를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묻혀졌던 문화의 복원까지 함께 고려할 때 그 내용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더욱이 전주는 예로부터 예향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전주 시민의 삶은 전주천과 밀접히 연관되어 왔다. 전주의 문화 가운데는 전주천과 연관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 사업 가운데 전주천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첫째, 전주천의 문화를 반영해왔던 것 중에 다리와 이와 인접한 시장들은 가장 중요하다. 다리와 연관된 공간들을 보다 문화적으로 특색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리 밑의 공간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주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들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전주천의 물길에 가장 인접한 활동으로는 물을 직접 이용하는 빨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자연화 사업을 통해 다가교 부근의 빨래터로 나타났다. 물을 이용하는 활동이지만 전주천 본류 보다는 지류 인근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한지 제조를 들 수 있다. 한지 제조업체는 전주에 많이 분포하는데, 전주천 지류가 흐르는 흑석골에 입지했던 업체들이 팔복동의 산업단지로 이동해 갔다. 한지제조업의 입지는

과거에는 생산과정에 필요한 물이 알맞은 곳이었으나, 친환경시대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었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뀐 것이다. 전주천과 관련되었던 한지 문화를 전주천 인근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전주한옥마을의 한지체험은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셋째, 전주천과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주천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마을은 중요한 자산이다. 이 밖에 음식 가운데서도 전주와 전북의 물길과 연관된 것이 적지 않다. 콩나물국밥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콩나물은 물로 재배되는데, 전주지역의 물이 적합하다고 한다. 한벽당 부근에서 기른 콩나물은 크지도 작지도 않아 적당했다고 한다(송영상, 1995: 282) 비빔밥은 다양한 음식의 조화를 추구한 것인데, 다양한 음식은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나온다. 전라북도의 여러 갈래의 물길은 자연환경의 다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물과 소리의 결합도 생각해볼 수 있다. 소리는 전주천이라는 자연뿐만 아니라 공연을 통해서도 나온다. 백제교 인근에 공연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다.

3. 물길은 생태축의 하나이다.

물길 자체에 대한 것과 물길과 다른 생태축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물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천은 물길로 이어져 있으므로 그 자체가 생태축에 해당된다. 물은 공기와 함께 대표적인 환경매체에 해당된다. 깨끗한 물이나 공기가 흐르면 그 곳의 환경도 깨끗해진다. 또한 물이나 공기는 한 곳에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흐르는 경우가 그 곳의 환경을 보다 깨끗하도록 한다.

생태축은 발전축과는 대비된다. 축은 지역개발에서 주요 공간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 의의는 집중과 분산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있다. 생태축은 집중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분산에 따른 환경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길 자체가 생태축이 된다는 점은 숲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하천 관리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천의 수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은 옛날부터 전주천을 보아왔던 이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천은 수량이 감소하면서 수질도 악화되었다. 물이 많으면 전주천을 보다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관적 차원에서도 물이 보다 많아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에 일찍이 섬진강의 물을 전주천으로 옮기는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961년에 전주시장은 전주천에 섬진강 상류의 물을 끌어들여 베니스처럼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78).

전주천의 수량은 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자연 상태의 수량은 매우 많았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간섭을 없애면 원래의 수량으로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기간이 짧지 않다는 데에 있다.

물의 양이 일정하면 이를 어느정도 흐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여울과 소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물 속에 서식하는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시각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물길은 자연하천의 경우 유역의 우수가 하천에 흘러들어 가므로 그 환경의 오염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반면에 인공하천은 유역의 우수가 하천수와는 분리되어 있어 유역환경을 반영할 수 없다. 자연하천은 보이는 곳의 환경뿐만 아니라 복개되어 보이지 않게된 곳의 환경도 반영한다. 흐르는 물의 오염정도는 그 지역의 친환경의 정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보이지 않는 곳의 오염 정도까지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여름 장마철에 전주천의 수질은 평소와는 차이를 보인다. 수질은

색깔을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필자는 전주천의 사평교 부근에서 장마철을 거치면서 하천 색깔은 네가지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마 이전의 평상시 보여주는 색, 장마가 시작된 직후 물길을 씻어내는 검정색, 장마 중에 검정색이 소멸된 다음 산에서 흘러온 황토색, 마지막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1급수의 색 등으로 바뀌어갔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색깔은 하천 수질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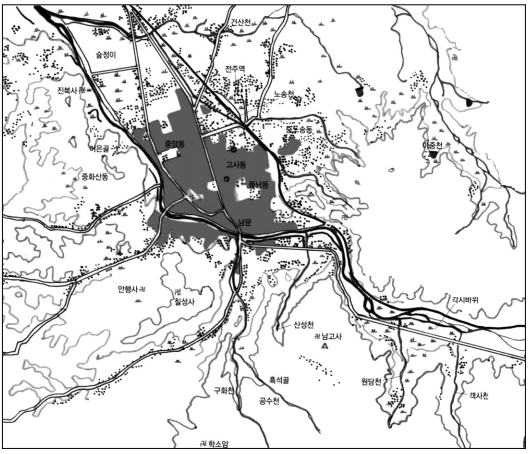


그림 8. 1970년대 전주의 물길
- 출처: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p.4.

하천 본류의 물은 지류에서 오는 것이기에 본류의 수질을 위해서는 지류의 수질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에서 개발은 중심부터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주변은 중심에 비해 더 보전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보전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주변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변은 보전 상태가 양호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용이하고, 중심에서 확장되는 개발을 저지할 수 있으며,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의 경우는 주변 하천의 물들이 도심으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물길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지류의 물이 본류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지류가 복개된 경우는 물길이 온전히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역주민들은 전주천의 개발(복개, 인공화)과 보전(복원, 자연화)의 필요성에 대해 본류와 지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

다. 도심을 통과하는 전주천 본류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은 복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류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복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가치지향에서 생활인가 생존인가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전북일보, 2006년 10월 10일자).

수질은 하천 복원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핵심 지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복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지류들의 수질이 제대로 관리된다면 사평교 부근에서도 발을 담글 수 있을 것이다. 건산천은 부분적으로 복개되었는데,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복개된 곳에서는 더 이상 복개되지 않은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막혀 있기 때문이다. 우수와 오수는 분리되어야 한다. 복개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 우수와 오수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하수관거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오수를 분리시킴으로써 전주천의 수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물길과 이와 연관된 생태축에 대한 것이다. 하천과 연관된 생태축은 물길 자체뿐만 아니라 둔치, 하천의 내부와 외부 간 연결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천과 천변을 이어주는 곳에는 인공적인 옹벽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천과 둔치를 이어주는 곳에는 가급적 자연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천과 천변의 경우 천변은 이미 도로 등으로 생태가 단절되어 있어 하천과 천변을 이어주는 옹벽이 설치되어도 생태축을 단절하게 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하

사진 10-1. 둔치의 길들

사진 10-2. 둔치의 길들

천과 둔치를 이어주는 곳을 인공적으로 하는 것은 하천과 둔치라는 두 생태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둔치의 인도 및 자전거길은 대개 생태공간을 잠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급적이면 필요한 길들만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가지에서는 전주천과 인근 녹지가 연결되는 생태축을 거의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축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생태축에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길도 있다. 물과 공기는 대표적인 환경매체에 해당된다. 물과 공기가 그 지역의 환경의 질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4. 공간이용을 치밀화한다.

보전을 지향하면서도 수요자의 다양한 이용을 반영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천과 그 천변은 개발시대 이전에는 물자와 사람이 모이도록 했고, 보전시대에는 사람이 모이고 있다. 전주천은 복합공간화되고 있다. 여가, 통근 · 학, 쇼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가는 하천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통근 · 통학이나 쇼핑을 위해서는 하천에 인접한 목적지로 이동한다. 통근 · 통학이나 쇼핑의 경우는 여가활동도 어느정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물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가지를 통과하는 전주천변에는 간선도로가 놓여 있다. 이는 하천의 물길에 가까울 수록 자연적이고, 멀어질 수록 인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물길이라는 생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길에 가까운 곳일 수록 친환경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수해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수해는 곧 물길로 가까운 곳부터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 경우 보다 자연적인 곳에 피해가 있는 상황이 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로도 필요하다. 현재는 물과 가까이 하려면 다리를 이용해야 하나, 다리는 건너기 위한 것이지 머물며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동일한 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용 목적은 다양하다. 물을 응시하고자 하는 이도 있고, 물을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물을 관찰하고자 하는 이도 있다.

한벽보는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필요할 때에 바람직한 높이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시간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공간을 놓고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그 곳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해당된다.

하천의 물은 전체적으로는 흘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나 사람에게 모두 바람직하다. 생물은 물이 어느정도 고여 있어야 그 곳에 머물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람은 특히 어린이들은 그러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사진 12). 친환경적 개발은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둔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둔치의 토지이용은 바뀌어 왔다. 산업화에 따라 생존공간에서 버려진 공간으로 간주되었고, 친환경시대에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주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에서 개발된 것 중에 다가교 인근의 빨래터가 있다. 빨래터는 여러 연령층으로부터 발길을 끌고 있다. 노년층에게는 빨래를 할 수 있거나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곳으로, 젊은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불

사진 11. 노년층의 빨래터

사진 12. 어린이들의 학습공간

러 일으키는 곳으로,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공간이 여러가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그 공간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개발과 생태를 결합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생태에 도움을 주는 개발의 방법들을 찾아내도록 해야한다. 이는 공간과 시간과 방법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유우익, 2005). 이용의 공간과 보전의 공간, 이용의 시간과 보전의 시간, 그 정도 등을 조합하는 것이다. 전주천의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생태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 이용하도록 한다. 공간과 시간과 방법의 조합에서는 순서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 다음으로 필요에 따라 공간 이용의 시간이나 공간 이용의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권혁재, 1995, 한국지리: 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지방편 · 법문사.
2005, 우리 자연 우리의 삶: 남기고 싶은 지리 이야기, 법문사
김규남 · 이길재, 2002,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신아출판사.
김익두, 1996, 전북 민요의 전반적 성격과 지역적 특성, 국어국문학, 116, 127-156.
김재희, 1983, 한지공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전주한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궁봉, 2000, 곡창 김제-만경평야, 한국지리,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 321-336, 교학사.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민관학협의회, 2007, 땅과 생명 만경강이 흐른다.
송영상, 1995, 전주천변, 전주문화원.
2000, 전라도풍물기, 신아출판사.
신진철, 2007, 쉬리가 사는 도심하천 전주천, 하천과 문화, 겨울호, 30-34.
유우익, 2005, 관광개발과 환경파괴: 좁은문으로 들어가라, 한국관광정책, 20, 50-57.
이명우, 2007, 전주시 자연형 하천의 구간별 특성 및 효과분석,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이학훈, 2004, 전주천 자연형하천 추진경과 및 향후관리방안, 춘천물포럼 발표논문.
이형석, 1990, 한국의 산하, 홍익제.
전북일보, 2006, 도시와 삶 그리고 생명 전주천, 5월 17일자 - 12월 27일자.
전주시, 1974, 전주시사.
전주역사박물관, 2004,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 전주의 도시형성과 공간구조의 변화, 신아출판사.
제5회 강의날대회 전주조직위원회, 2006, 장롱속 전주천 추억찾기, 세종C&C.
조성욱, 2007, 만경강의 역할과 의미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2), 187-200.
최창조, 2000, 땅의 눈물 땅의 희망, 궁리출판.
홍성덕, 2007, 전주천의 역사와 문화, 하천과 문화, 겨울호, 24-29.
Song, K. E., 2009,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Land Developments and Reclamations of the Honam Plain in Korea,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3(1), 13-23.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1:50,000, 전주.
남영우, 1996,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1:50,000, 성지문화사.